



다가오는 제2의 일제 강점기에서 한글을 구해냅시다

옥동초 6-7 이해원

오랜만에 가지는 휴식이다!

오늘 아침부터 난 한창 들떠있었다. 왜냐면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책을 읽을 생각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아빠가 언니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혜윤아, 혜원아! 오랜만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난 이제 곧 중학생이기도 하기에 가족들보다는 친구들이나 나 혼자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아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빠의 들뜬 모습에 나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난 내 몸을 밖으로 이끌었다. 모두 차에 타니 아빠는 대구로 놀러 갈 것이라고 하셨다.

‘웬 대구?’

난 속으로 의아했지만 대구에는 재밌는 놀이동산과 테마파크 등 내 취향을 저격할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기에 살짝 기대되었다. 근데 아빠 입에선 내가 예상했던 것과 180° 다른 말이 나왔다.

“오늘은 대구에서 열리는 한글사랑 축제에 갈 거란다. 너희들도 요즘에

순우리말보단 외국어나 신조어 등을 많이 사용하잖니. 한글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야.”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한글사랑 축제라니. 어차피 지금은 한글보단 외국어를 더 많이 쓰는 시대인데,’

나는 약간 툭툭거리며 창문에 비친 풍경을 보려고 몸을 창가 쪽으로 돌렸다.

그때 내 얼굴이 비춰야 할 자리에 한 낮선 남자아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눈을 비비고 똑바로 다시 보아도 분명 그 남자아이는 창문에 또렷이 비춰져 있었다. 그때 그 남자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니, 넌 누구야! 누군데 이 조선땅에 들어와 있는 거냐고! 그런 휘황찬란한 옷에 머리는 또 왜 그 모양이래? 분명 왜놈이지?”

그 남자아이는 한껏 성난 듯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당할 내가 아니다. 다짜고짜 일본 놈이네, 뭐네 하며 화내던 그 소리에 발끈해 나도 얼른 입을 열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너야말로 그 옷에 그 머리는 뭐야? 누가 보면 진짜 조선시대 사람인 줄 알겠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남자아이는 정말 옛날 사람 같았다. 비쩍 마른 몸에 거무튀튀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이는 도대체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믿기 어려웠다.

아이가 말했다.

“조선시대 사람은 뭐 조선시대 사람! 그럼 여기가 조선이지 어딘데!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거울에 왜 네가 비춰 보이는 거야?”

우리는 몇 번의 티격태격을 거쳐 시간이 왜곡되어 나의 자동차 창문과

그 아이의 거울로 우리는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그야말로 우리는 ‘진짜’ 시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 여행이라니!

난 하늘 위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항상 시간 여행을 꼭 해서 과거의 위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무언가 달랐다. 마냥 기뻐해야 할 시간에 무언가가 찝찝했다.

그 아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정식으로 인사할게. 내 이름은 마코토야. 마코토 기요시. 만나서 반가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지내보자.”

난 어안이 병병했다. 조선시대 사람이랑 친구가 된다고? 아니 그보다 이름이 마코토라고? 난 놀라움에 속사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일단 나도 반가워. 내 이름은 이혜원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마코토라고? 그럼 일본인 아니야? 아까 나한테 왜놈이라고 욕했으면서, 네가 일본인이었다, 이 말이지?”

약간 긴장감이 풀어졌던 우리 사이에 다시 약간의 열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말했다.

“아니, 그건 창씨개명 때문에 그런 거고! 일본 천황폐하께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도 못 다니게 한다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야. 내 진짜 이름은 길동이야, 홍길동.”

나는 그제야 학교에서 배웠던 일제 강점기 당시의 배경이 떠올랐다.

“아, 미안해. 네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일제 강점기인가 보구나. 학교에서 배웠어. 근데 괜찮아.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린 나중에 독립을 이루게 돼.”
내가 마지막 문장을 말하자 딱밤을 아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 미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별책을 만나 보구나.’

다행히 길동이라도 내 마지막 말은 못 들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말했다.

“그나저나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다고? 무척 힘들겠구나. 내 소중한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까지 해야 한다니.”

내가 공감을 해주자 길동이는 억울하고 화나고 또 슬픈 감정까지 더 북받쳐 오른 것인지 속사포로 말을 이어갔다.

“창씨개명 뿐인 줄 알아? 그뿐이면 좋게. 우리나라 곡식들과 문화, 소중한 유산들까지 일제수일투족을 다 약탈해 가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터여야 할 학교에선 일본 선생님이 총을 들고 수업해. 그 일본어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길동이는 분노를 토해냈다.

“우리 아빠는 일본 놈에게 붙잡혀 가서 지금은 행방도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누나는...”

길동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일본 순사에게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에 들어갔다고!”

난 항상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는 언니가 떠올랐다. 언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말이 항상 입 밖으로 튀어나와 싸움이 빈번한 우리 언니. 언니와 아빠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무엇보다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복에 겨운 내가 항상 짜증만 낸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이 들었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내 마음이 말하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말들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우리 가족과 한 차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가족들은 나와 길동이의 대화를 못 들은 모양이었다.

‘하긴, 과거의 사람이랑도 대화하는데 이 정도야, 뭐.’

난 생각했다.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다. 길동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에 대해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길동이는 학교에서 불만이 많은지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한글을 쓰면 엄청난 벌을 받게 돼. 한국어를 한 번 쓰면 곤장 열 대, 이런 식이지. 근데 최근에 들어선 선생님께서 재밌는 게임을 하자는 거야. 그러고선 반장에게 위반을 주시는 거 있지? 한국어를 쓰는 동무를 보면 그 위반을 계속 전달하게 되는데 수업이 끝날 때 그 위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곤장 50대에 온갖 심부름까지 모든 수모를 당해야 돼. 나도 딱 한 번 위반 때문에 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길동이는 곤장에 맞은 손바닥에 아직도 얼얼한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진짜 손바닥에 불나는 줄 알았다니까.”

길동이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길동이가 너무나 안타까웠다. 식민지화된 조국에서 조국의 언어도 쓰지 못한 채 일제에 끌려간 누나와 아빠까지, 나와 같은 나이에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그 비쩍 마른 작은 몸으로 품고 있는 걸 생각하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다.

그에 비해 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길동이의 행복까지 내가 다 가져간 것만 같아 웬지 모르게 미안해졌다. 길동이와 그 시대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와 내가 없었을 터이니 그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너무나 소중한 한글로 당당히 글까지 쓰고 있지만 길동이었다면 곤장 100대는 맞았을 테니까.

이젠 대구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았고 길동이의 목소리가 흐릿해진 것 같았다. 난 직감적으로 이젠 헤어질 시간이라는 걸 느꼈다.

길동이의 마지막 말은

“난 독립된 조국에서 한글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된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였다.

그러고선 길동이의 모습은 희미해지더니 곧 사라졌다. 길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의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내 얼굴을 덮고 있었다.

난 생각이 많아졌다. 한글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한글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쓰는 족족 고마워해야 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내 주위에는 이 깊은 교훈을 모르는 친구들과,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있다. 나조차도 이제 막 한글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 한글 팬클럽이 있다면 그곳에서 신생아 같은 존재일 것이기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난 다짐했다. 내가 이 다짐을 할 자격이 없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미 한글을 향한 내 사랑과 열망은 너무나 커졌기에, 한글사랑 축제에 가족들과 다녀와 한글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뒤, 난 나의 다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았다.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최대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길동이 같은 존재가 되어 주겠다는 다짐.”

한글을 쓰고 싶어도 못 쓰던 시대가 100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온다. 세계화로 한글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리, 이젠 한글보다도 영어를 먼저 배운다는 소리들.

그 큰 조상들의 희생과 눈물로, 이제 겨우 한글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한글이 이렇게 단지 사라지게 놔둘 수는 없다. 지금 나의 다짐은 작은

